

2023 SPA 형법 전면개정판 정오표 추가

최근의 전원합의체 판결(대판 2022.6.23, 2017도3829 전원합의체 ;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등으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, 채권양도인이 위 금전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.)을 반영한 정오표입니다.

〈총론 I 권〉

p.172 문제 9번 해설 ② 수정

② × :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⇨ 구체적 부합설(발생사실(A사망)인 A에 대한 살인죄)

p.213 문제 8번 해설 ㉠ 수정

㉠ × : 교사의 착오 중 질적 초과 ⇨ 교사자에게는 강간죄에 대한 교사 책임이 없고, 단지 제31조 제2항에 의한 교사한 범죄(절도죄)의 예비·음모에 준하여 처벌될 수 있으나 절도죄의 예비·음모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불가벌이 된다.

〈총론 II 권〉

p.62 문제 5번 해설 ㉠ 수정

㉠ × : 사람을 약취·유인한 자가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으나(제295조의 2), 범죄가 기수에 이른 후에는 형법총칙상 중지미수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.

p.210 문제 23번 해설 ④ 교체

④ × : ~ (3줄)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(사후적 경합범)이나 전단 경합범(동시적 경합범)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판결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(대판 2014.3.27, 2014도469).

p.265 문제 7번 해설 ① 수정

① × : 선고유예 ⇨ 보호관찰 ○, 사회봉사명령 ×

〈각론 I 권〉

p.84 상단 (4) ② 수정

②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가 거주하는 **아파트 내부의 엘리베이터**에 탄 다음 그 안에서 폭행을 가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계단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**강간**하고 **상해**를 입힌 경우 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((주거침입) 강간상해죄 : 동법 제8조 제1항) 죄 ○(대판 2009.9.10, 2009도4335) **13·18. 경찰승진, 19. 변호사시험, 20. 해경 3차**

p.167 하단 관련판례 3번 수정

3. 피고인이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가 거주하는 **아파트 내부의 엘리베이터**에 탄 다음 그 안에서 폭행을 가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계단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**강간**하고 **상해**를 입힌 경우 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((주거침입) 강간상해죄 : 동법 제8조 제1항) 죄 ○(대판 2009.9.10, 2009도4335) **13·18. 경찰승진**

p.175 확인학습 9번 교체, 정답 교체

9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들어간 경우라면,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. ()

11. 법원행시·순경, 13. 경찰간부, 15. 경찰승진, 16. 수사경과

9. × ⇒ 9. ○

p.302 상단 “•기타” 1. 교체

1. 채권양도계약 :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등으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, 채권양도인이 위 금전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(대판 2022.6.23, 2017도3829 전원합의체 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의 소유권은 채권양수인이 아니라 채권양도인에게 귀속하고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을 위하여 양도 채권의 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. 따라서 채권양도인이 위와 같이 양도한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에 관하여 채권양수인을 위해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). 19·21. 법원행시, 14. 변호사시험·순경 2차, 17. 수사경과, 16·22. 경찰승진

예 ① 채권양도인이 양도 통지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을 채권양수인의 승낙 없이 자신의 동생에게 빌려준 경우 ⇒ 횡령죄 ×

② 甲은 임대인 丙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乙에게 양도하였는데도 丙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고 丙으로부터 남아 있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⇒ 횡령죄 ×

▶ 유사판례

채권양도담보계약 : 채무자가 기존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후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이 사용할 의도로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아 변제금을 수령한 후 채무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⇒ 횡령죄 ×(대판 2021.2.25, 2020도 12927 ∴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 ○, 채무자가 채권자와의 위탁신임관계에 의하여 채권자를 위하여 위 변제금을 보관하는 지위 ×). 21. 7급 검찰

p.316 확인학습 15번 정답 교체

15. × ⇒ 15. ○

p.320 문제 4번 해설 ① 교체, 정답 교체

① ○ : 횡령죄 ×(대판 2022.6.23, 2017도3829 전원합의체 ∴ 금전의 소유권은 양도인에게 귀속하고 양도인은 양수인을 위해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음)

정답 4. 정답 없음

〈각론 II 권〉

p.172 확인학습 43번 수정

43 甲이 위조한 공문서의 이미지 파일을 이메일로 A에게 송부하여 프린터로 출력하게 하였는데, A가 출력 당시 위 파일이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했다면 甲에게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. ()

16. 변호사시험·경찰간부, 19. 법원행시, 20. 경찰간부, 21. 7급 검찰